

T V

TV 1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KBS 광주 열린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살맛나는 세상	40 아침연속극 (장미의 전쟁)
30 KBS 뉴스	00 희망필레이 20 아침드라마 (사랑하길 잘했어)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 동화 행복한 세상	50 여유만만	10 00 TV속의 TV	40 SBS 뉴스
00 그 사람이 보고싶다 55 비르말 고운말	20 TV특강(재)	11 00 MBC 뉴스 25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00 일일 연속극 (우아라 동해아)(재)	12 00 MBC 뉴스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재)	00 SBS 12 뉴스 30 열린TV 시청자세상
00 열린채널 30 태극천자문(재)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재)	1 15 웃고 또 웃고 스페셜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스페셜
00 KBS 뉴스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0 디큐멘터리 3일(재)	2 05 특선다큐멘터리 (안네-소피 무터의 아름다운 성공)	00 SBS뉴스 10 인문학열전 (나에 대한 이해, 프로이트를 만나다)
00 비르말 고운말(재) 05 한국 현대사 증언 TV 자서전(재) 55 TV동화 행복한 세상(재)	00 KBS 뉴스타임 05 중앙(재) 35 TV유지원	3 05 스포츠 매거진(재)	00 하늘에서 본 지구 3(재)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보물섬 (제주)	05 누가누가 잘하나	4 00 MBC 뉴스 10 우리아이 미래발전 (재능 무한대) 40 TV탑승 꾸러기 식사교실	00 SBS 애니갤러리 30 출산 장려 프로젝트 (아이가 미래다)(재)
00 KBS 뉴스5 20 생생 3월!	00 사랑의 가족 30 성공예감	5 00 MBC 뉴스 10 남도에 살고 싶네	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씨네포스트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05 유익뱅크	6 00 MBC 뉴스 10 남도에 살고 싶네	15 생방송! KBC 투데이 55 시사인터뷰 후
00 KBS 뉴스네트웍 30 세상사는 이야기 (광주참여)	25 생생정보통	7 00 생방송 전국시대 45 일일시트콤 (용왕 내 사랑)	2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25 일일연속극 (우아라 동해아)	40 KBS 뉴스타임 (광주전남) 50 스포츠 제로	8 15 일일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 뉴스데스크	00 특집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
0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VJ특공대	9 55 스타오디션 (위대한 탄생)	50 TV 백사자전 55 긴급출동! SOS24
00 KBS 특별기획 (에너지의 마지막 경고)		10	
00 KBS 뉴스라인 40 미디어 비평	05 금요기획 (지성다하네 세가지 시선 죽음)	11 05 MBC 스페셜	05 특집다큐 5부작 (지오투어 한반도 4~5부)
10 TV 미술관 ①:00 KBS 뉴스 10 독립영화관 (마녀의 관)	05 유희열의 스케치북 ①:25 드라마 스페셜 (화이트 크리스마스)(재)	12 05 MBC 뉴스 24 20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무엔 행복)	①:10 우리땅 속살 보기 (오지)(재) 45 나이트라인 ②:00 정타기행

“진한 감정연기, 긴장감에 재미있어요”

김현주, MBC 주말극 '반짝반짝 빛나는' 천방지축 아가씨 역할

“최근에 감정을 많이 찍었는데 진한 감정이라 긴장감이 있고 연기하는 맛이 나요.”

배우 김현주가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서 뒤바뀐 운명을 극복하는 천방지축 아가씨 한정원을 연기하는 소감을 전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원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달 13일 첫 방송한 '반짝반짝 빛나는'은 빠른 이야기 전개와 탄탄한 대본, 배우들의 호연에 힘입어 시청률이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 책임감이 느껴졌고 열심히 하고픈 욕심도 있었다”는 김현주는 “생각보다 빠른 호흡을 얻어 기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짜임새 있는 대본과 함께 연출출판사로서의 딸로 부유한 삶을 살다 출생의 비밀을 알고 한순간에 가난한 순댓가집 딸이 되는 인물이다.

김현주는 “급박이에게는 기억이 있지만 정원은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인 정원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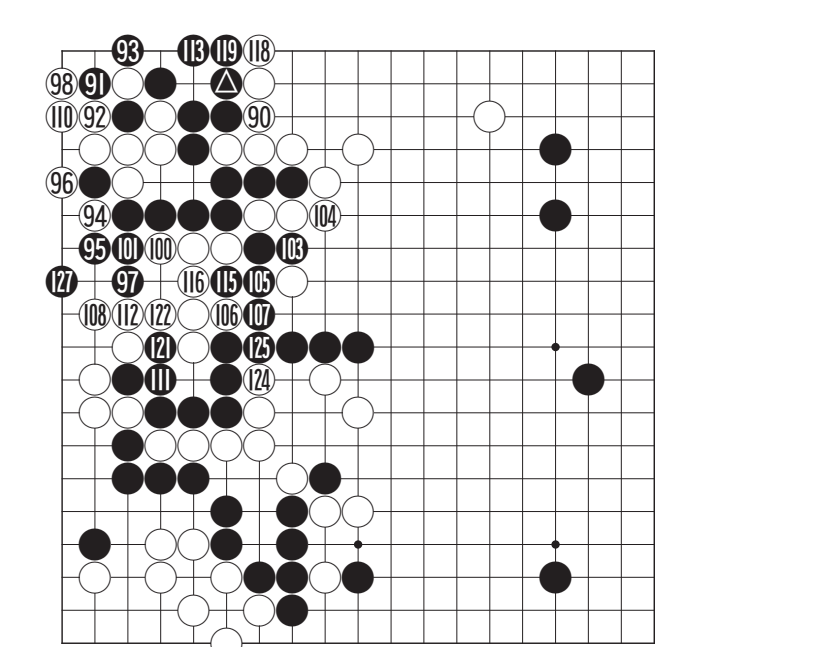
김현주는 “처음에는 캐릭터가 전자들과 비슷해보이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진한 감정을 연기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했다.



가 많이 나올텐데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웃었다. /연합뉴스

제4회 광양시정배

무시무시한 강공책 최강부 결승전 7보(90~127) 백 정창호 5단 흑 박광주 5단



과연 대마불사라는 격언대로 대마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도저히 수습될 것 같지 않던 흑 대마가 101로 막는 순간 드디어 패가 나는 모습이다.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정창호 5단의 입장에서 날벼락을 맞은 형국이다. 장고를 거듭하다가 결국 백 90으로 틀어막았는데 흑 91로 돌려쳐 백 집을 박살내면서 평평거리고 패를 만들고 있다.이제는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격이다. 흑은 살자는 자체패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백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

박광주 5단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패를 하다가 이번에는 욕심이 동했는지 흑 103부터 107까지 좌변의 백 대마를 차단하는 강공책으로 선화한다. 살기만 하는게 아니라 아예 끝장을 내자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다. 흑 105로는 사실 좌변의 108 자리에 두기만 해도 살아있었다.

백의 고민은 계속된다. 팻감이 없으니 거꾸로 백 110에 이어 굴복해야만 했고 흑은 내친 김에 111에 이어 백 대마의 안힘을 없애고 있다. 패를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흑 127이 알미운 팻감. 백이 과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8일(음 2월 14일 壬申)

- 36년생 사면초가니 언행 삼가라. 4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나 언행 조심하면 오히려 친구를 얻는다. 6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72년생 기다리는 소스 얹고 마음 어지럽다. 84년생 쉼 먹고 잘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행운의 숫자 : 23,43
- 37년생 남편 이해하라. 고민에 빠졌다. 49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찾을 수 있으니. 61년생 돈 생기나 쓸 구멍 더 많다. 73년생 미운 사람 보이면 조용히 피하라. 85년생 부부간의 사소한 언행이 있으나 많은 이해로 애정은 새롭다. 행운의 숫자 : 18,32
- 38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인다. 50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시기다. 62년생 생각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74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0,42
- 39년생 쌓아놓은 권위를 버려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51년생 온 가족의 변동이 예상되나 북쪽은 길하라. 63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소화가 마는다. 75년생 위장이 괴로우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28
- 40년생 자식을 살펴봐라 좋은 일이 생긴다. 52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면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64년생 주변에 새로운 일이 생기나 결과는 미지수다. 76년생 준비를 단단히 하라 침착 산중이다. 행운의 숫자 : 13,41
- 41년생 지나간 일도 다시 한번 살펴봐라. 53년생 하는 일이 불안하다 속사정을 살펴봐라. 65년생 가족의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77년생 건강과 재물이 함께번에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4,27
- 42년생 금의양행 적이나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빛이 없다. 54년생 생 남의 딱이 커 보이니 욕심을 버려라. 66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칭찬이 없다. 78년생 바늘하리 못 매어 쓰니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20,39
- 43년생 벼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봐라. 55년생 성급한 결정은 매사가 헛일이나 결정은 내일로 미루라. 67년생 더불어 사는 것이니 상대방을 인정하면 평화롭다. 79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뒷사람의 인정이 일러라. 행운의 숫자 : 16,22
- 44년생 아내의 얼굴을 살펴봐라 좋은 일이 생겼구나. 56년생 아침부터 서두르나 결과는 없다. 68년생 안과계의 검진을 해봐라. 80년생 어려움은 있어도 결과는 있다. 행운의 숫자 : 15,33
- 45년생 온고지신 모든 옛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57년생 일본 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69년생 자신의 명예를 떨치는 구실이 생기니 자신을 베풀라. 81년생 아랫사람의 잘못을 과해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1,34
- 46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58년생 진퇴양난이지만 돌파구는 보인다. 70년생 젊어진 재물을 형제나 나누어 보라 기쁨은 배가 된다. 82년생 충음을 아껴 써도 하루가 짧다. 행운의 숫자 : 12,30
- 47년생 칭찬을 아끼지 마라 부하가 무심하다. 59년생 큰 소비가 생길 수 있다. 71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83년생 고자질하는 부하가 보이니 사안에 단속하면 구설은 없다. 행운의 숫자 : 08,37

www.cafe.daum.net/sajou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위	한자 이야기
<p>Do you have a minute?</p> <p>시간 있으세요?</p> <p>A : Mary, do you have a minute? B : Yes, what do you need? A : I need you to see if you can find the sales report. B : But we have not gotten second quarter report yet. A : I'm sorry. I meant first quarter. B : O.K. I'll get it for you.</p> <p>A : 메리 씨, 시간 있으세요? B : 네, 왜 그러신데요? A : 매출보고서를 찾을 수 있는지 봐주시겠어요? B : 하지만 저희는 두 번째 분기 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A : 미안해요, 제가 말한 것은 첫 번째 분기입니다. B : 알겠어요. 제가 가져 올게요.</p> <p>* quarter report = 분기 보고서 * I meant ~ = 제가 말할 것은~ * 중국에 사는 린선생하고 연결이 되는지 봐주시겠습니까? = See if you can get Mr. Lin on the phone in China.</p>	<p>毎朝 何時に 起きますか。</p> <p>매일 아침 몇시에 일어나니까</p> <p>A : 毎晩 何時に 寝ますか。 B : 夜明け 一時頃 寝ます。 A : では、毎朝 何時に 起きますか。 B : 六時半頃 起きます。 A : 매일 밤 몇 시에 잠니까. B : 새벽 1시경에 잠니다. A : 그럼 매일 아침 몇시에 일어나니까. B : 6시반쯤에 일어나니까.</p> <p>[단어정리] 毎朝 매일 아침 毎晩 매일 밤 毎旦 매일 寝る 자다 起きる 일어나다 夜明け 새벽</p> <p>[주의할 시간] 四時 (4시) / 七時 (일곱시) / 九時 (아홉시)</p>	<p>名落孫山 míng luò sūnshān</p> <p>이름이 손산 밖이요(불합격)</p> <p>합격을 표현하는 우리말에 '문닫고 들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이 최하위로 합격했다는 말이지요. 중국어에 名落孫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름(名)이 손산(孫山) 밖으로 떨어지다(落)"라는 말입니다.宋代에 손 산이라는 사람이 지인과 함께 과거를 보러 갔다가 본인만 합격하고 돌아왔지요. 함께 갔던 지인의 부모가 찾아와 '우리아이는?' 하고 물기에, "저는 합격자 명단 제일 아래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자체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합니다.</p> <p>그래서 '名落孫山'이라는 '이름이 손산 밖에 있다'는 표현이 시험에 떨어짐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손산은 문닫고 들어왔고, 합격 못한 그 친구는 손산이 마지막으로 문닫아 버리니 못들어 온 게 되네요. 우리말과 名落孫山을 합쳐보니 문닫은 사람이 좀 야속하네요.</p>	<p>老馬之智(노마지지)</p> <p>늬름로 말마, 갈지, 지혜지</p> <p>노마지지(老馬之智)는 늬름 말의 지혜라는 뜻으로,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간 경험을 지니고 있음은 이르는 말이다.</p> <p>제(齊)나라 환공(桓公)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 군사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관중(管仲)이 말하였다. "늬름 말은 본능적으로 길을 찾기 때문에 이런 때는 늬름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에 늬름 말 한 마리를 풀어놓자, 얼마 되지 않아 큰길에 나타났다. 또 한 번은 산을 오르다가 먹을 물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습봉(隰朋)이 말하였다. "개미는 겨울엔 산 남쪽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사니 흙이 한 치(寸)쯤 쌓인 개미집이 있으면 그 곳에 물이 있는 법이다." 군사들이 산을 뒤져 개미집을 찾아 그곳을 파 내려가자 과연 샘물이 솟아났다.</p> <p>[출전] 『한비자(韓非子)』 <세림(說林)> * 급수 : 한자능력검정 7급 5급 준3급 4급</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p>